

# 2023년 1분기 식품산업 동향

박미성, 김성희

한국농촌경제연구원 '식품산업 정보분석 전문기관'은 식품산업 정보를 수집·가공·심층분석하여 수요자에게 제공하는 것을 목적으로 『식품산업진흥법』에 의거하여 지정·운영되고 있음.

식품외식정보 웹진 2023년 5월호에서는 국내 식품제조업 관련 2023년 1분기(1~3월)의 거시지표, 출하와 물가 현황, 재고상황, 수출입 현황, 식품산업 1분기 경기 현황 및 2분기 경기 전망 조사 결과를 가공·분석하여 정리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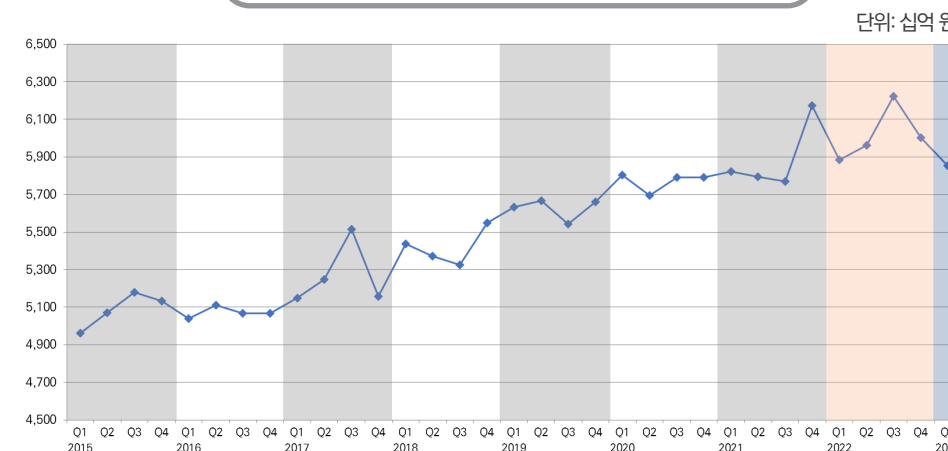
분석 결과, 1) 식품제조업 생산활동(GDP) 및 음식료품 부문 가계소비지출은 2023년 1분기에 전년 동기 대비 감소하였으며, 2) 식품제조업 출하지수는 대부분 업종에서 전년 동기 대비 하락하였고, 생산자물가지수는 상승하였음. 3) 2023년 1분기 식품제조업의 재고율은 지난 분기에 이어 100%를 초과하였음. 한편, 4) 2023년 1분기 가공식품의 수출액 및 수입액은 전년 동기 대비 최대치를 기록하였고, 5) 식품제조업 종사자 수와 상용직 비율 모두 소폭 증가하였음. 6) 2023년 1분기 식품제조업 경기는 대부분의 업종에서 악화, 2분기에는 떡빵과자, 발효주업, 낙농제품, 면류유사, 육류가공 부문에서 개선이 예상되나, 최근 대내외적 요인으로 육류가공 및 조미식품 분야에서 경기 악화가 우려됨.

## 1. 식품제조업 관련 거시지표

2023년 1분기 식품제조업 실질 GDP와 실질 가계소비지출은 2022년 4분기 및 전년 동기(2022년 1분기) 대비 모두 감소

- 2023년 1분기 식품제조업의 실질 GDP는 5.9조 원으로, 2022년 4분기 대비 2.5% 감소하였고, 전년 동기 대비 0.5% 감소하였음.
- ▶ 2023년 1분기 전체 제조업의 실질 GDP는 128.7조 원으로 전년 동기보다 3.4% 감소한 반면, 2022년 3분기 이후부터 회복세를 보임.
- ▶ 그러나 식품제조업의 경우 2022년 3분기(6.2조)를 정점으로 지속 하락세를 보임. 이는 2022년 4월 사회적 거리두기 해제와 원자재 가격 상승을 반영한 제품 출고가인상으로 2022년 3분기까지 상승세를 보였으나, 원자재 구입가격이 불안정한 상황이 지속되면서 원료 비중이 높은 식품제조업이 일반 제조업보다 상대적으로 타격을 크게 받았기 때문으로 판단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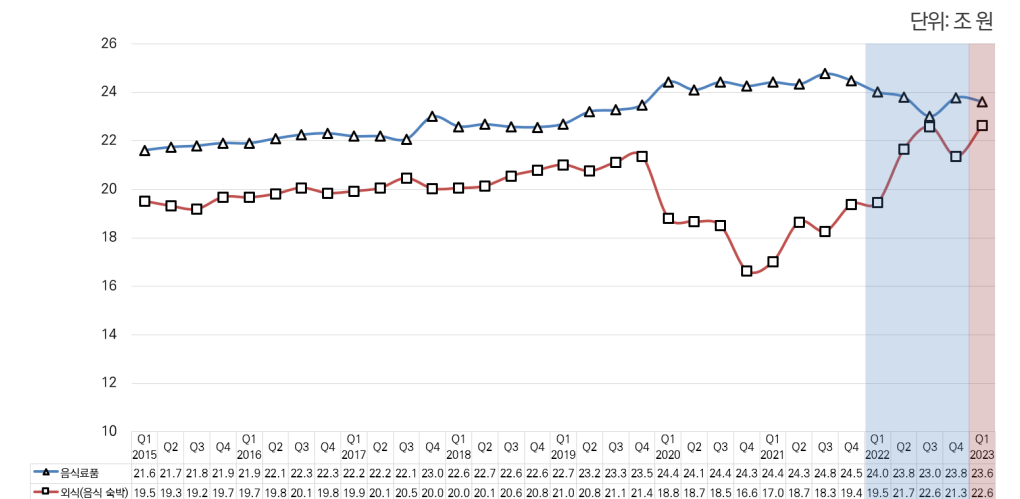
### 식품제조업 분기별 실질 GDP 추이



주: 분기별 실질 GDP는 계절조정 자료를 이용  
자료: 한국은행, 「국민계정」

- 2023년 1분기 가계의 실질 음식료품(식품 및 비주류 음료) 지출액은 23.6조원으로 2022년 4분기 지출액(23.8조원) 대비 0.7% 감소하였고, 전년 동기(24.0조원) 대비 1.6% 감소하였음.
- ▶ 반면, 같은 기간 가계의 음식업 및 숙박업 소비지출액은 22.6조 원으로, 전년 동기(19.5조 원) 대비 큰폭(16.4%)으로 확대되었음. 이는 코로나19 팬데믹 이후 일상 회복 시대에 접어들면서 외식 소비가 다시 확대되고, 내식 소비가 소폭 감소한 것으로 해석할 수 있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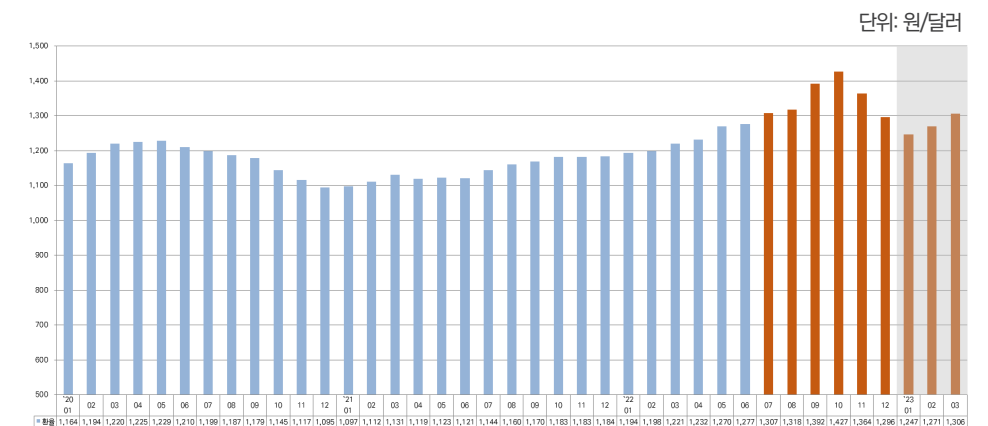
### 음식료품 및 외식(음식/숙박)에 대한 분기별 실질가계소비지출 추이



자료: 한국은행, 「국민계정」

- 2023년 1분기 평균 대미 환율은 달러당 1,275원으로서 전년 동기(1,204원) 대비 5.8% 상승함(원화가치가 낮아짐).
- ▶ 2021년 초 1,100원을 하회하였다가 지속적으로 오름세를 보이면서 2022년 10월에 1,400원대를 기록한 이후, 점차 안정세를 보이고 있음. 고환율은 식품 수출 측면에서 대체로 기회 요인으로 작용하나, 높은 환율은 원재료 수입가격 또한 높이기 때문에 원가 경쟁력에 있어서는 부정적 영향도 상존함.

### 2020~2023년 월별 대미 환율 추이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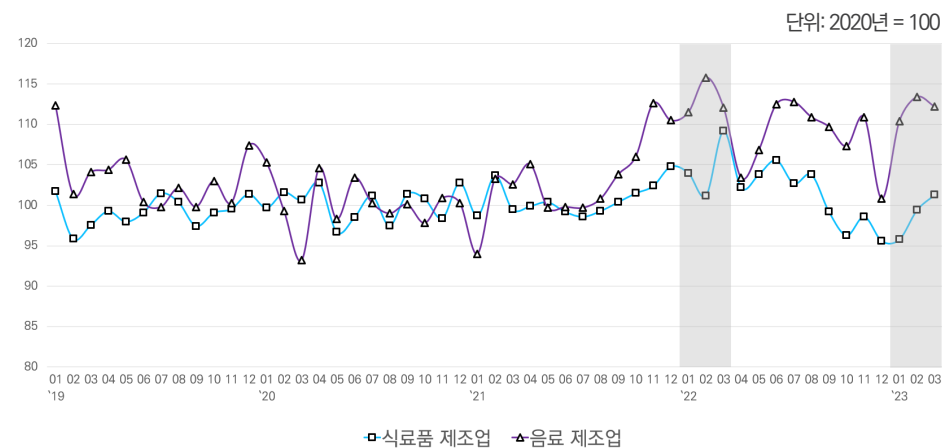
자료: IMF(아시아)

## 2. 업종별 출하 및 물가

2023년 1분기 식품제조업의 제품 출하지수는 대부분 업종에서 전년 동기 대비 하락하였고, 생산자물가지수는 모든 업종에서 전년 동기 대비 상승

- 2023년 1분기(1~3월) 식품제조업의 출하지수는 평균 98.8로 전년 동기(104.8) 대비 5.7% 하락하였으며, 음료제조업의 출하지수는 평균 112.0으로, 전년 동기(113.1) 대비 1.0% 하락하였음.
- ▶ 식품제조업 및 음료제조업 모두 2023년 1월 이후 소폭 회복세를 보이고 있음.
  - 식품제조업 출하지수: (2023년 1월) 95.8, (2월) 99.4, (3월) 101.3
  - 음료제조업 출하지수: (2023년 1월) 110.4, (2월) 113.4, (3월) 112.2

식품제조업과 음료제조업 월별 출하지수 추이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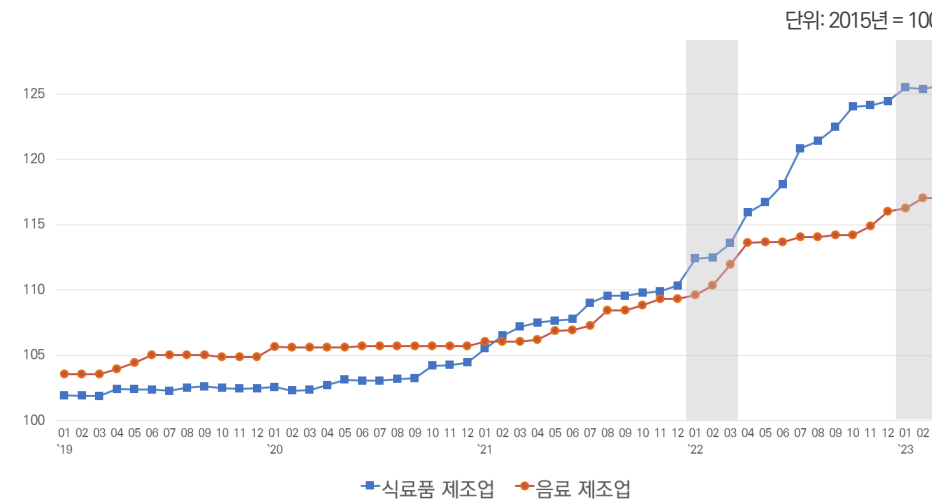


자료: 통계청, 「광업제조업동향조사」

- 2023년 1분기(1~3월) 식품제조업 및 음료제조업의 생산자물가지수는 전년 동기 대비 각각 11.3%, 5.6% 상승하였으나, 지난 분기(2022년 4분기) 수준을 유지하고 있음.
  - ▶ 2023년 1분기 식품제조업의 생산자물가지수는 125.5로, 전년 동기(112.8) 대비 11.3%로 크게 상승하였지만, 지난 분기(124.2)와 큰 변화 없음.
  - ▶ 음료제조업의 평균 생산자물가지수는 116.8로, 전년 동기(110.6) 대비 5.6% 상승하였으나, 지난 분기(115.0) 수준을 유지하고 있음.

- ▶ 생산자물가 상승 원인을 보면 설탕, 우유 등 원부자재 가격과 전기·가스 등 공공요금, 인건비 등 전반적인 비용 가격 상승으로부터 기인함.

식료품 및 음료 제조업 생산자물가지수 월별 추이



자료: 한국은행, 「생산자물가지조사」

- 업종별로 2023년 1분기 출하지수의 전년 동기 대비 증감률을 보면 비알콜음료 및 얼음 제조업을 제외하고 모두 하락하였음.
  - ▶ 세부 업종별로 살펴보면, 음료제조업 중 비알콜음료 및 얼음 제조업만이 전년 동기 대비 0.5% 상승하였음. 이는 코로나19 감소세에 따른 일상 및 야외활동 증가와 제로(0) 칼로리 음료 등 소비자 트렌드를 겨냥한 다양한 신제품 성장 등에 기인한 것으로 보임.
  - ▶ 특히 과·채가공 및 저장처리업의 출하지수 감소율이 14.7%로 가장 큰데, 이는 2022년 폭염·장마철에 따른 작황 이상으로 과채류 가격이 전년 동월 대비 급상승하면서 생산비 부담 및 제품 가격 상승으로 작용했기 때문으로 판단됨. 식품제조업은 타 산업 대비 원료 비중이 상대적으로 높아 원재료 가격 상승이 제품 가격 상승에 영향을 미치고, 결과적으로 수요량 및 출하 감소를 결과하게 됨. 다음으로 출하지수 감소 폭이 큰 업종은 낙농품(-11.8%), 수산물가공(-6.6%), 육류가공(-5.9%), 곡물가공(-5.8%) 등의 순임.

2023년 1분기 업종별 출하지표의 전년 동기 대비 증감률

업종명(축약 업종명)	출하지수	생산자물가지수
식료품제조업	-5.7	11.3
도축, 육류 가공 및 저장 처리업(육류가공)	-5.9	6.4
수산물 가공 및 저장 처리업(수산물가공)	-6.6	10.6
과실, 채소 가공 및 저장 처리업(과·채가공)	-14.7	15.8
동물성 및 식물성 유지 제조업(유지)	-2.5	32.7
낙농제품 및 식용빙과류 제조업(낙농품)	-11.8	7.5
곡물가공품, 전분 및 전분제품 제조업(곡물가공및전분)	-5.8	25.6
기타 식품 제조업(기타식품)	-4.4	6.1
동물용 사료 및 조제식품 제조업(사료및조제식품)	-2.1	12.7
음료제조업	-1.0	5.6
알콜음료 제조업(알콜음료)	-3.1	4.0
비알콜음료 및 얼음 제조업(비알콜음료)	0.5	6.8

주 1) 기타식품에는 떡·빵·과자류, 면류, 조미료 및 첨가물, 건강보조식품, 도시락 등이 포함

2) 생산자물가지수는 출하지수의 산업 분류와 유사하게 적용하여 계산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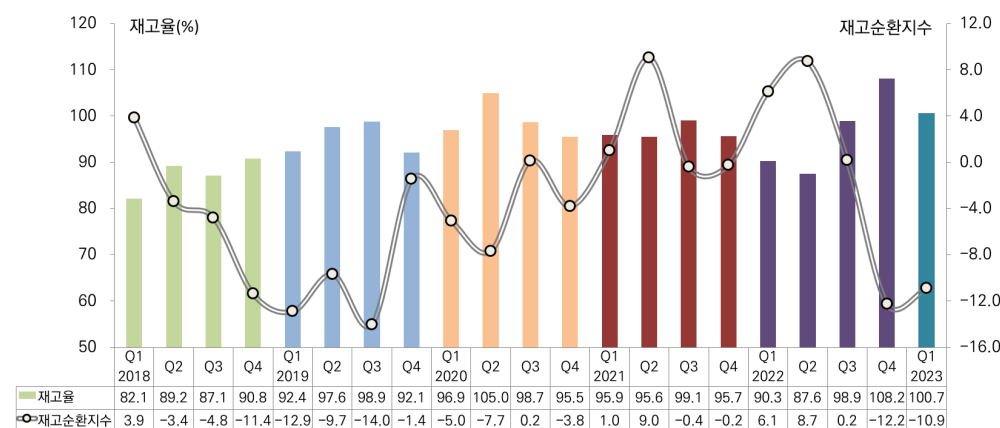
자료: 통계청, 「광업제조업동향조사」 및 한국은행, 「생산자물가지조사」

## 3. 식품산업의 재고 현황

2023년 1분기 식품제조업의 재고율은 지난 분기에 이어 100% 초과

- 2023년 1분기 식품제조업의 재고율은 100.7%로, 2022년 4분기에 이어 100%를 초과하여 제품 출하량보다 재고량이 더 많았음.
  - ▶ 2023년 1분기 식품제조업의 재고율은 100.7%로 전년 동기(90.3%) 대비 약 10%p 증가하였음. 이는 최근 5개년(2018~2022) 1분기 재고율 중 가장 높은 수치이며, 2020년 2분기(105.0%), 2022년 4분기(108.2%)에 이어 세 번째로 높은 수치임.
  - ▶ 그러나, 전분기(2022년 4분기)와 비교하였을 때는 식품제조업 재고율이 7.5%p 하락하였음.
- 2023년 1분기 식품제조업의 재고순환지수는 -10.9로 재고 증가율이 제품 출하 증가율보다 높게 나타났으며, 전분기(2022년 4분기) -12.2보다 소폭 상승함.
  - ▶ 식품제조업의 재고순환지수는 2022년 1분기 6.1에서 2022년 2분기 8.7로 상승하다가 4분기 -12.2로 전환되었으며, 2023년 1분기 -10.9로 소폭 회복됨.

## 식품제조업 분기별 재고율과 재고순환지수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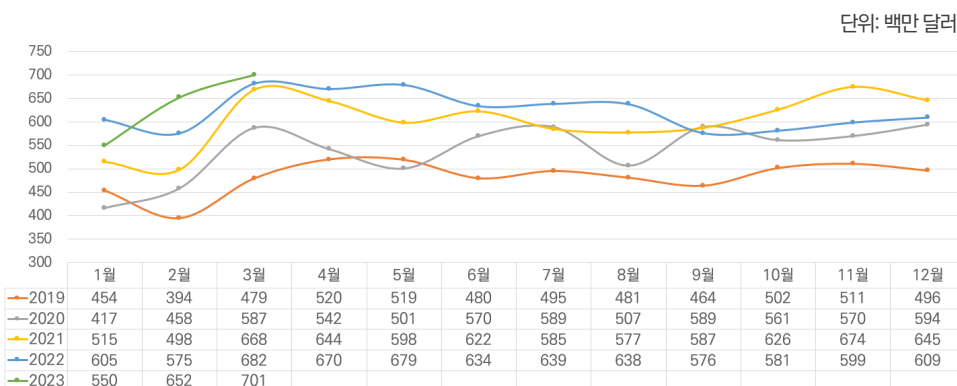
주: 재고순환지수 = 전년동기대비 출하증가율 - 전년동기대비 재고증가율  
자료: 통계청, 「광업제조업동향조사」

## 4. 가공식품 수출입

2023년 1분기 가공식품의 수출액 및 수입액 모두 전년 동기 대비 소폭 증가하여 최근 5개년 1분기 실적 중 최대치 기록

- 2023년 1분기 가공식품 수출액은 19.0억 달러로, 전년 동기 대비 2.2% 증가하였음.
  - 품목군별로 낙농품의 수출액이 전년 동기 대비 8.5% 증가하며 가장 크게 늘었고, 다음으로 담배류(8.3%), 곡물·곡분의 조제품(7.5%) 등의 순으로 나타남.
  - 한류 콘텐츠에 대한 인기에 힘입어 K푸드의 위상이 지속적으로 높아짐과 함께, 중국의 제로코로나 정책 폐기로 중국 수출 의존도가 높은 낙농품의 수출량이 증가한 것으로 판단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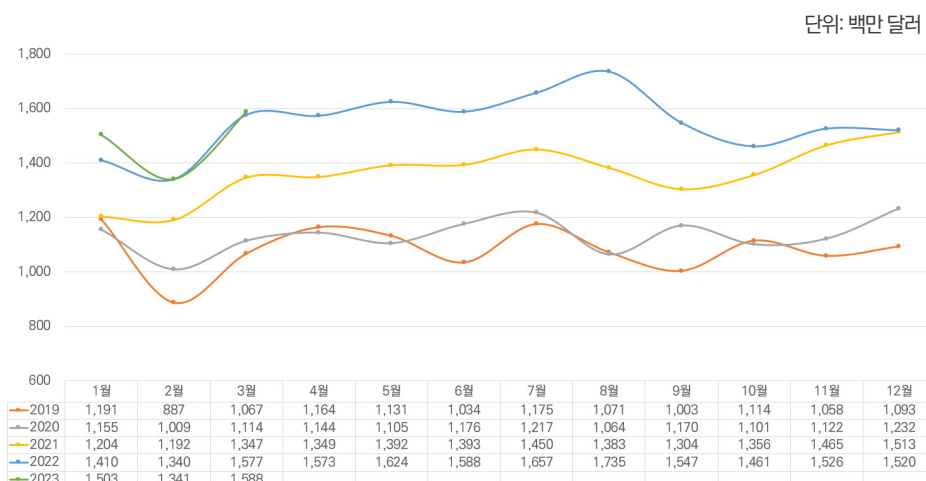
## 가공식품 월별 수출액 추이



주: 가공식품 품목 범위는 HS코드 04, 11, 15~24로 정의  
자료: IHS Markit, 관세청

- 2023년 1분기 가공식품 수입액은 44.3억 달러로 전년 동기 대비 2.4% 증가하였음.
  - 품목군별 살펴보면, 맥아·전분·밀의 글루텐 수입액이 전년 동기 대비 41.2%로 가장 크게 상승했으며, 다음으로는 담배류(29.6%), 낙농품(22.4%) 등의 순으로 확인됨.
  - 국제 곡물가격 상승으로 인해 맥아·전분·밀 등 수입액이 크게 증가한 것으로 판단됨.

## 가공식품 월별 수입액 추이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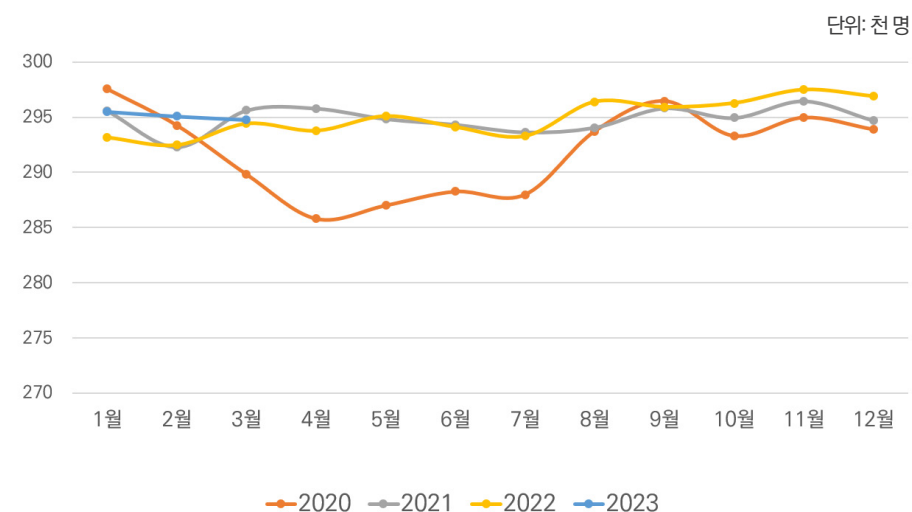
주: 가공식품 품목 범위는 HS코드 04, 11, 15~24로 정의  
자료: IHS Markit, 관세청

## 5. 식품산업의 고용

2023년 1분기 종사자 수는 전년 동기 대비 0.6% 증가, 상용직 비율은 91.5%로 전년 동기 대비 0.5%p 상승

- 2023년 1분기 식품제조업 고용(29만 5천 명)은 전년 동기 대비 0.6% 증가하였으나, 2022년 하반기에 비해서는 0.3% 감소함.
  - 2023년 1분기 식품제조업 평균 취업자 수는 29만 5천 명으로 전년 동기(29만 3천 명) 대비 0.6% 증가하였음. 그러나 2022년 하반기(29만 6천 명)와 비교하였을 때는 0.3% 감소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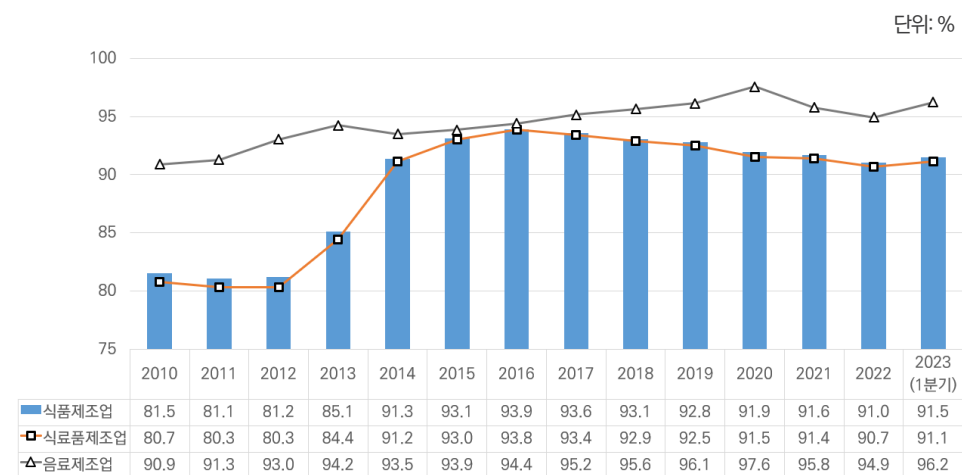
## 식품제조업 월별 종사자 수 추이



자료: 고용노동부, 「사업체노동력조사」

- 2023년 1분기(1~3월) 식품제조업 취업자의 상용직 비율은 91.5%로 2022년 대비 0.5%p 상승함.
  - 2023년 1분기 식품제조업 상용근로자의 비율은 0.5%p 상승한 91.5%로 조사됨. 그 중 식품제조업은 91.1%로 전년 대비 0.4%p 상승하였고, 음료제조업은 전년 대비 96.2%로 전년 대비 1.3%p 상승하였음.

## 식품제조업 종사자 중 상용직 근로자의 비중



자료: 고용노동부, 「사업체노동력조사」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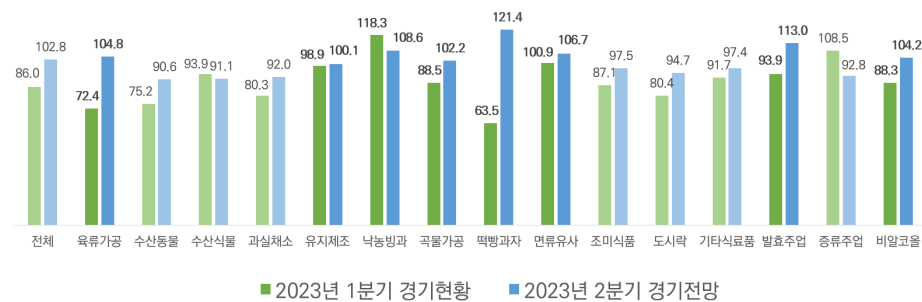


## 6. 식품제조업의 2023년 1분기 경기 현황과 2분기 전망

2023년 1분기 식품제조업 경기는 대부분의 식품제조업 업종에서 악화, 2분기에는 떡·빵·과자, 발효주 등 일부 개선 예상

- 식품산업 경기동향지수 조사결과에 따르면, 식품제조업은 2023년 2분기에 떡·빵·과자, 발효주, 낙농제품, 면류/마카로니 및 유사식품 제조업에서 경기 회복이 예상됨.
  - ▶ 2023년 1분기는 증류주와 낙농빙과 부문에서 경기가 양호하게 진단되었으며, 그 외 비알코올, 조미식품, 육류가공, 과실채소, 곡물가공, 발효주 등은 물가, 금리, 환율 상승 등 경기불황 및 원자재가격 상승으로 인해 경기가 다소 악화된 것으로 나타남.
  - ▶ 2023년 2분기는 코로나19 회복과 더불어 나들이 및 각종 모임의 활성화 기대가 반영되어 대부분 업종에서 경기 호전이 전망됨.
    - 호전 전망 업종 : 떡·빵·과자(121.4), 발효주(113.0), 낙농제품(108.6), 면류/마카로니 및 유사식품(106.7), 육류가공(104.8), 비알코올(104.2), 곡물가공(102.2), 유지제조(100.1)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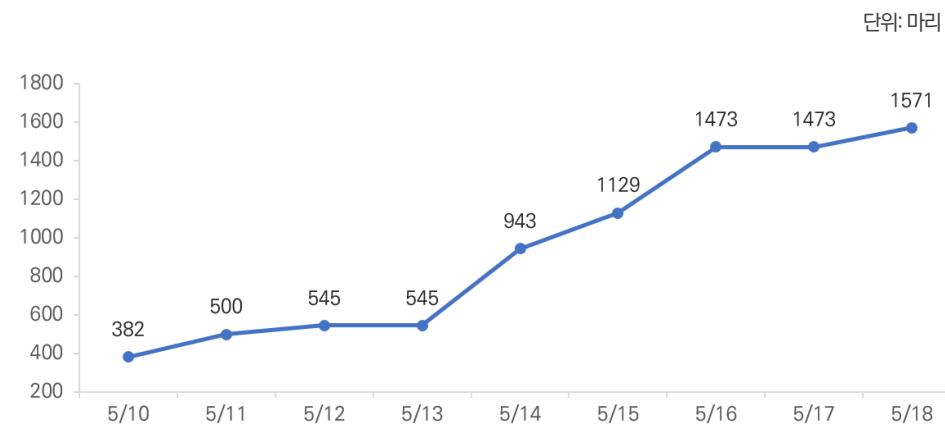
### 식품제조업 업종별 2023년 1분기 경기 현황 및 2분기 경기 전망



주: 1분기 현황은 전분기 대비, 2분기 경기 전망은 금분기 대비를 기준으로 함.  
자료: 한국농수산식품유통공사, 식품산업 경기동향조사

- 육류가공업은 최근 대내외적으로 구제역 및 광우병 발생 여파로 경기 회복에 일부 타격이 우려됨.
  - ▶ 5월 10일 충북 청주에서 4년 3개월 만에 구제역이 재발생하였고, 5월 18일까지 총 1,571마리가 확진되었음. 전국에 우제류 이동중지명령이 내려졌고, 이에 따른 공급 차질로 한우 1등급 도매가는 5월 19일 기준 kg당 15,063원으로, 5월 초(1~7일 기준, kg당 12,654원) 대비 19.0% 급등하였음.
  - ▶ 또한, 미국에서 광우병 발생으로 쇠고기 수입 검역이 강화되어 쇠고기 가격 상승세는 당분간 유지되다가 6월 이후에 정상화될 것으로 전망되어 2분기 육류가공 분야에서 경기 회복에 부정적 영향이 우려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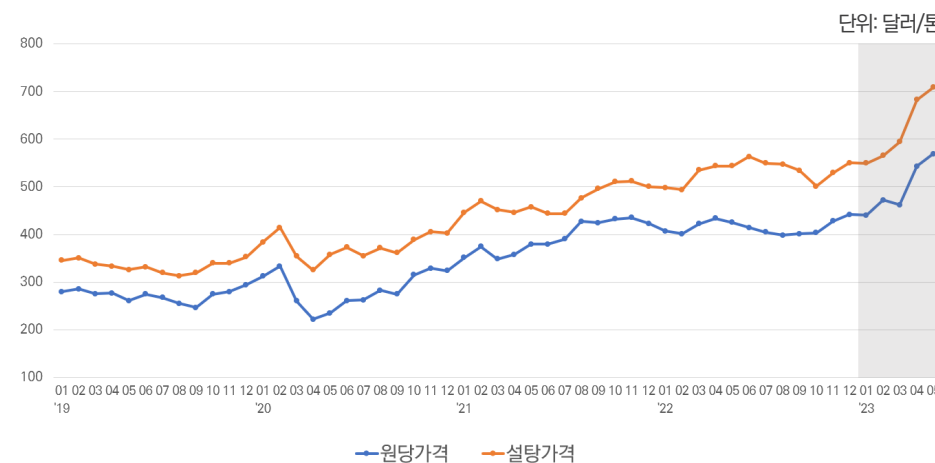
### 구제역 누적 확진 현황(5월 19일 기준)



자료: 농림축산식품부

- 조미식품, 원자재 가격 상승으로 2023년 2분기 경기 악화 전망
  - ▶ 조미식품의 2분기 경기 전망지수는 97.5로, 1분기에 이어 경기 악화가 예상됨. 이는 설탕의 원재료인 사탕수수의 생산량 감소로 원당 및 설탕 공급 부족이 지속되고 있으며, 이로 인해 국제가격이 지속적으로 상승하고 있기 때문임.
  - ▶ 제24차 비상경제재판회의에서 2023년 하반기 공급 물량 부족이 우려되는 품목(설탕, 돼지고기 등)의 안정적 가격 관리를 위하여 할당관세 추진 발표

### 원당 및 설탕 가격 추이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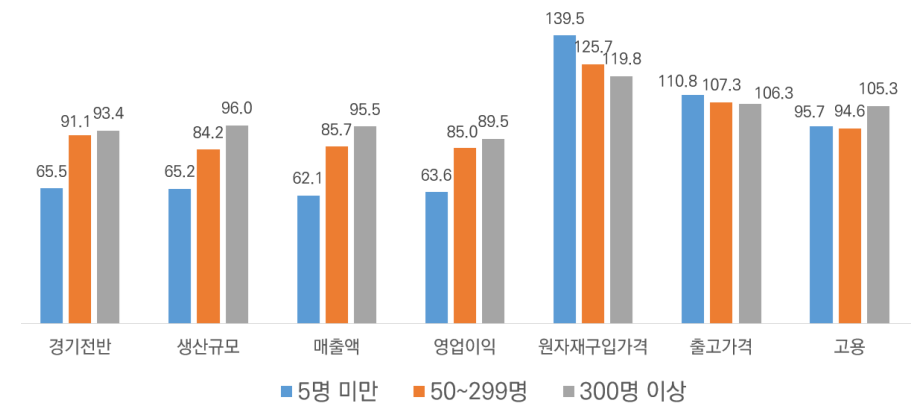


자료: 한국농수산식품유통공사

- 식품제조업의 2023년 1분기 경기 진단 및 2분기 전망을 규모별로 비교하면 소규모 기업에서 1분기 경기가 가장 크게 악화되었다고 진단하였으며, 2분기 경기 전망도 가장 비관적임. 이는 소규모 업체에서 중·대형 업체에 비해 상대적으로 원자재 구입 가격 상승 체감이 높기 때문으로 보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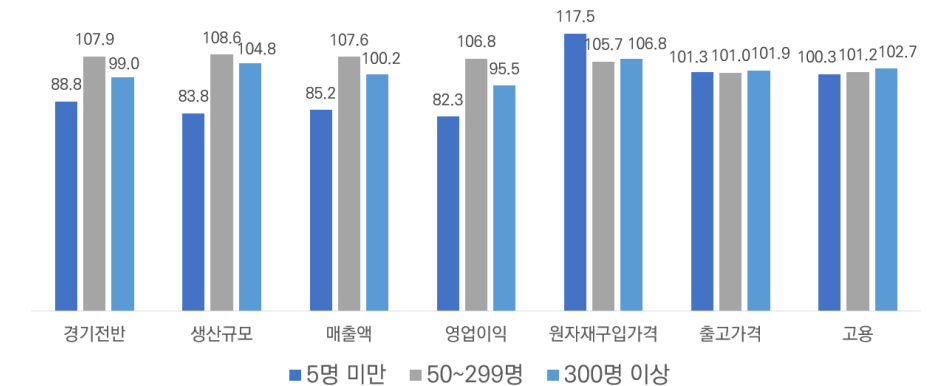
- ▶ 2023년 1분기 식품제조업 경기 현황 지표들 중에서는 원자재 구입 가격이 가장 크게 상승한 것으로 나타났으며, 특히 종사자 수 5인 미만의 소규모 업체에서 체감한 원재료 가격 상승이 상대적으로 가장 높은 것으로 확인됨.
- ▶ 2023년 2분기에도 모든 규모의 식품제조업체에서 원자재 구입 가격이 상승할 것으로 전망하였음. 그 중 소규모 기업에서 원자재 구입 가격에 대해 가장 비관적인 전망을 갖고 있는 것으로 확인됨.

### 식품산업 규모별 2023년 1분기 경기 현황



주: 1분기 현황은 전분기 대비, 2분기 경기 전망은 금분기 대비를 기준으로 함.  
자료: 한국농수산식품유통공사, 식품산업 경기동향조사

### 식품산업 규모별 2023년 2분기 경기 전망



주: 1분기 현황은 전분기 대비, 2분기 경기 전망은 금분기 대비를 기준으로 함.  
자료: 한국농수산식품유통공사, 식품산업 경기동향조사

KREI 한국농촌경제연구원 <http://www.krei.re.kr/krei/index.do>

### 저자정보

- ▶ 박미성 연구위원(061-820-2362), mspark@krei.re.kr
- ▶ 김성희 연구원(061-820-2054), seongkim@krei.re.kr